

혈액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부갑상선암과 병발한 갈색 종양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오현숙 · 박은경 · 이선영 · 전진석 · 한동철 · 이희발

서론 : 신성 골이영양증은 만성신부전에서 발생하는 흔하게 발생하는 골질환으로,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신성 골이영양증의 한 형태인 섬유성 골염 (osteitis fibrosa)의 주원인이다. 본 증례에서 보고하는 갈색 종양은 섬유성 골염의 드문 이형 (variant)이다.

증례 : 29세 여자로 내원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전신 골통과 하부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12년 전 IgA 신증을 진단받고, 내원 10년 전부터 말기신부전 진단하에 복막투석을 시작하여 3년 4개월 동안 지속하였다. 이후 반복되는 복막염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으로 전환하였다. 내원 3개월 전에 상기 주소로 입원을 하여 세침 흡인 검사한 결과 부갑상선 항진증 진단받고, 부갑상선 에탄올 절제술 (ethanol ablation)을 시행받았다. 에탄올 절제술시의 intact PTH 1,125.1 pg/ml, ALP 1,220 IU/L, Ca/P 10.1/5.3 mg/dL이었다. 이후로도 환자는 상기 주소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어 에탄올 절제술을 시행한지 3개월만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혈액 검사는 WBC 6,300/mm³, Hb 8.0 g/dL, Platelet 365,000/mm³, Total protein/Albumin 7.0/4.3 g/dL, 총빌리루빈 0.6 mg/dL, AST/ALT 20/9 IU/L, ALP 1,346 IU/L, BUN/Cr 59.2/8.7 mg/dL, Total cholesterol 167 mg/dL, Triglyceride 198 mg/dL, Glucose 83 mg/dL, Ca/P 10.1/4.6 mg/dL, LDH 349 U/L, intact PTH 1,009.51 pg/mL, ferritin 159.21 ng/mL이었다.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 CT 및 MRI에서 요추 3, 4, 5번의 갈색종양이 의심되어 요추 3번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갈색 종양으로 판명되었다. 요추 조직검사 이후에 환자는 부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부갑상선 조직검사 결과 부갑상선암으로 판명되었다.

결론 : 본 증례에서는 부갑상선암에 병발한 신성 골이영양증의 드문 형인 갈색 종양을 가진 환자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